

고흥군 '이야기 보따리 할머니' 봉사단 눈길

책놀이지도사 자격증 23명
아동 교육기관 책 읽어줘
아이들 인성 키워주고
어르신 사회 참여 기회 제공

“응~ 응~ 할머니, 오늘은 이 책 읽어주세요.”

고흥군이 할머니들이 강사로 나서 지역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목을 끌고 있다.

19일 고흥군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키워주고 어르신들에게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프로그램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를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인 이야기보따리 할머니는 모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여성 어르신들로 구성됐다.



'이야기보따리 할머니'로 불리는 책놀이지도사가 유치원을 찾아 아이들을 상대로 책을 읽어주고 있다. <고흥군 제공>

군은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양성을 위해 만 56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3달간 군립중앙도서관에서 '책놀이지도사' 양성 기본과정을 운영했다.

이 과정을 10회 이수하고 '책놀이지도

사' 자격증을 취득한 23명이 이야기보따리 할머니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드림스타트센터(고흥읍)와 과역 초등학교, 고성어린이집(포두면), 두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지역 아동교육기관

을 방문해 지역 아동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책 읽어주는 활동은 물론 아이들의 창의성 표현 활동인 '손유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그림책 세상을 생생하게 표현해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구연동화'를 시연하는 강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가진 삶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르신들이 공공도서관을 매개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기회를 얻는 곳'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립중앙도서관에서는 1층 '어린이책나라'를 방문하는 이용자(5세 이상~초등 저학년)를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에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여는 당일 선착순 20명이며 해당 요일에 도서관을 방문하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고흥=주각종기자 gju@



'소동락 곡성 귀농학교' 개강... 12월까지 운영

곡성군은 지난 14일 귀농귀촌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금빛 내인생, 곡성에서 시작해요'를 주제로 '소(通)동(行)락(樂) 곡성 귀농학교' 개강했다.

곡성군은 '소통하고 함께하면 즐겁다'는 의미에서 귀농학교 이름을 '소(通)동(行)락(樂)'으로 이름 지었다.

이날 개강식과 함께 열린 '귀농귀촌, 농업인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 특강에서는 농업인이 알아야 할 부동산 소유권과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세무지식과 농업창업, 식품제조 등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법률적 내용이 소개됐다.

오는 12월까지 9개 과정으로 운영될 곡성 귀농학교는 기초농업기술 교육을 포함해 절기력과 재배력, 생활용품 기술, 귀농귀촌 융화합 교육, 농가사례 발표, 농장 견학과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귀농귀촌인들이 곡성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삶의 행복을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고흥미래농업대학 곤충자원반 과정 개강

고흥군은 미래산업으로 기대되는 곤충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곤충자원반' 교육과정을 개강했다.

이번에 운영되는 과정은 고흥미래농업대학 제11기 과정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총 23회 100시간 수업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곤충산업에 대한 기초 지식과 식용, 약용, 사료용 등 산업화를 위한 창업 노하우 등이다.

군은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흥미래농업대학 11기 신입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사진)을 갖고 곤충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박병중 고흥군수는 입학식 자리에서 “곤충산업이 미래의 고부가가치 식량자원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며 “곤충산업을 육성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말했다.

한편 2008년 처음 개설된 고흥미래농업대학은 지금까지 578명의 농업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등 농업인에게 배움의 장이 되고 있다.

/고흥=주각종기자 gju@



2018 고흥미래농업대학 '곤충자원반' 입학식

보성군 녹차골향토시장 옥상정원 콘서트

“낭만 가득한 옥상정원 콘서트로 놀러 오세요.”

보성군은 지난 17일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옥상정원 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콘서트는 자연을 즐기며 힐링하는 전자바이올린 연주와 시낭송, 성악, 클래식 기타 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져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옥상정원 콘서트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오는 6월까지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향토시장 내 상인회건물 2층에서 개최된다.

보성군은 이와함께 2월과 7월 보성향토시장 야외공연장에서 문화정자를 운영해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펼치고 녹차 시음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도 선보인다.

보성군 관계자는 “봄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며 “보성의 향토색이 물씬 묻어나는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서 매력 넘치는 공연과 다채로운 행사에 많은 분들의 관람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구례군·지리산 둘레길서 '옥스팜 트레일워커' 열린다

세계적 도전형 기부 챌린지
5월 12·13일 이틀간 개최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 주최하는 세계적인 기부 프로젝트 '제2회 옥스팜 트레일워커'가 오는 5월 12일과 13일 양일간 구례군과 지리산 둘레길에서 열린다.

4인이 한 팀이 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출발해 지리산 노고단과 화엄사, 운조루, 사성암 등 지리산 둘레길과 구례군을 경유하는 100km 코스와 남녀노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10km 코스의 패밀리

프로그램 두 가지 행사로 진행된다.

1981년 홍콩에서 시작된 '옥스팜 트레일워커'는 4명이 한 팀을 이뤄 38시간 동안 100km를 완주하는 도전형 기부 챌린지로서 한국에서는 지난해 처음 열렸다.

지난해에도 구례군과 지리산 둘레길에서 개최됐다. 100km 행사에는 총 126개팀 504명이 참가했고, 부대행사로 열린 10km 패밀리 프로그램에는 792명이 참가했다.

대회 주최측은 가족들이 참가하기 좋은 옥스팜 트레일워커 10km 프로그램도 아름다운 코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100km 참가신청은 오는 30일 오후 6시

까지 해야하며 개인자격으로 신청 가능한 10km 패밀리 프로그램은 4월 20일 오후 6시까지이다. 참가비는 100km가 1인당 10만원(팀당 40만원)이며 패밀리 프로그램 참가비는 2만5000원(구례군민 특별 참가비 5000원)이다.

트레일워커 신청과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oxfamtrailwalke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옥스팜 트레일워커 참가비 전액은 100% 국제구호기금으로 기부돼 전 세계 가장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구호 자금으로 쓰인다. /구례=이진택기자 lit@

보성군 내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1208억원 신청

보성군이 농업·농촌 발전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1208억원을 전남도에 신청하고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19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분과별로 개최하고 전년대비 14억원이 증가한 7개분야 59개사업 1208억원으로 확정해 전남도에 예산신청을 했다.

분야별로는 농촌분야 10개사업 282억원, 농업분야 10개사업 263억원, 식량분야 4개사업 41억원, 축산분야 5개사업

149억원, 유통원예분야 11개사업 74억원, 산림분야 10개사업 141억원, 기타 9개사업 258억원이다.

이번에 신청한 예산은 전남도 심의를 거쳐 오는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2019년도에 분야별로 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장기투자 가치 좋습니다, 회사 사정상 매매함, 010-3605-5000

<h3>덕남동 - 임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20만원 <p>일사불대폭 조정가</p>	<h3>비금도, 임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무인도)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있음 ■ 교환가능(현금3억+기타부동산) ■ 매매 - 14억 (대출3억포함) 	<h3>거문도, 토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도로접, 전망 좋음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h3>중동, 근린상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시 중동 1888-1 (라희 호텔 / 훔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 좋음 ■ 매매 - 11억 (조정가)
---	--	---	---